Ⅰ. 경영환경

□ 2020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로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 세계 무역과 산업생산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전분기의 큰 하락 이후 모두 반등함

□ 2020년 3/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전의 2분기 연속 하락 이후 반등하였으며,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이 개선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와 수주가 증가함
-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고,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함

-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단기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이나 주요국 국고채 금리 상승,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됨

-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국고채 수급 경계감 등에 영향을 받아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투자펀드 거래는 모두 축소된 반면, 국내외 주식 거래는 증가함

- ○ 2020년 3/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14.4%로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함

1. 경제

가.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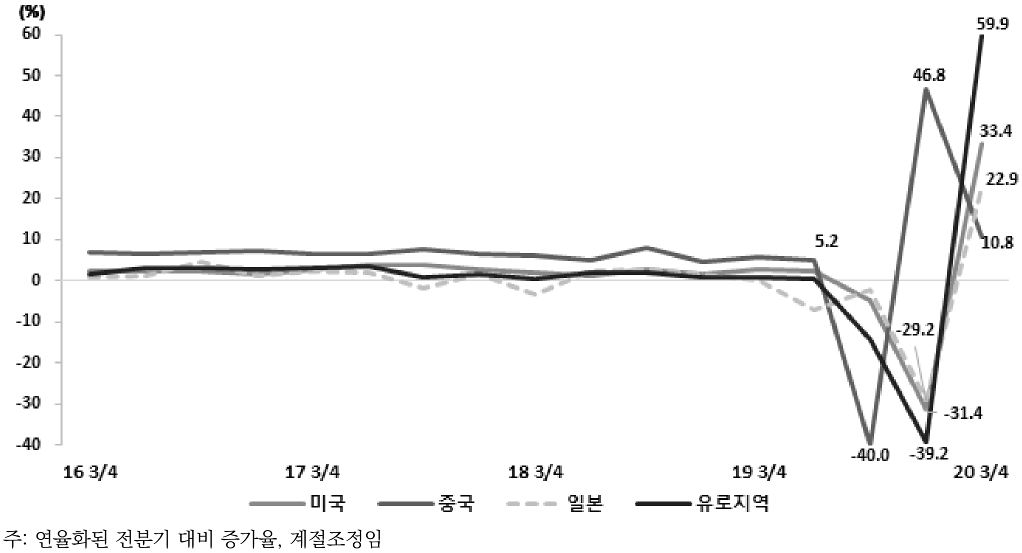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2020년 3/4분기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33.4%, 22.9%, 59.9%로, 전분기 대비 각각 64.8%p, 52.1%p, 99.1%p 상승함

○ 미국, 일본, 유로지역 모두 전분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3/4분기에 큰 폭의 상승을 보임

○ 중국의 3/4분기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0.8%로, 전분기에 비해 36.0%p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기록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12); 중국 국가통계국(2020. 10); 일본 내각부(2020. 12); Eurostat(202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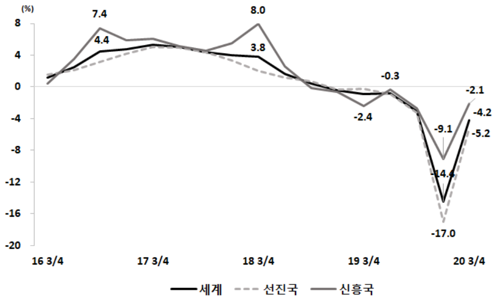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됨

○ 2020년 3/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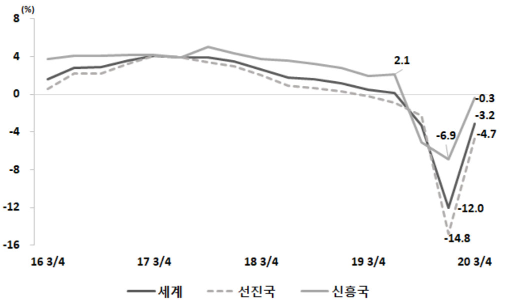
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됨

○ 2020년 3/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0.3%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전분기보다 줄어듦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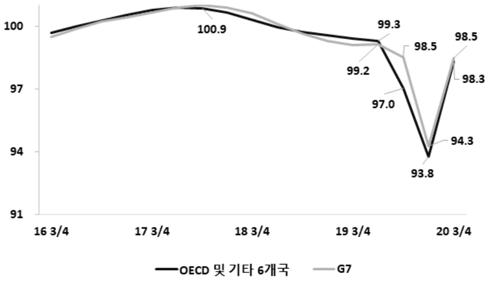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12)

■ 2020년 3/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1]는 98.3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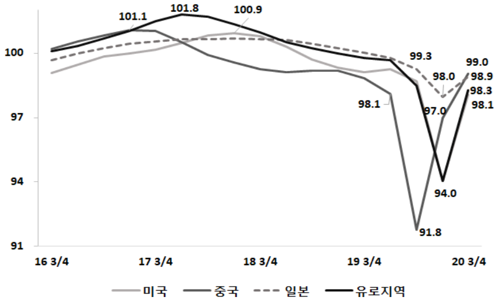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8.5로 전분기보다 4.2 상승하였고,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은 전분기보다 각각 4.1, 4.3, 0.9 상승한 98.1, 98.3, 98.9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2.0 상승한 99.0으로, 2분기 연속 상승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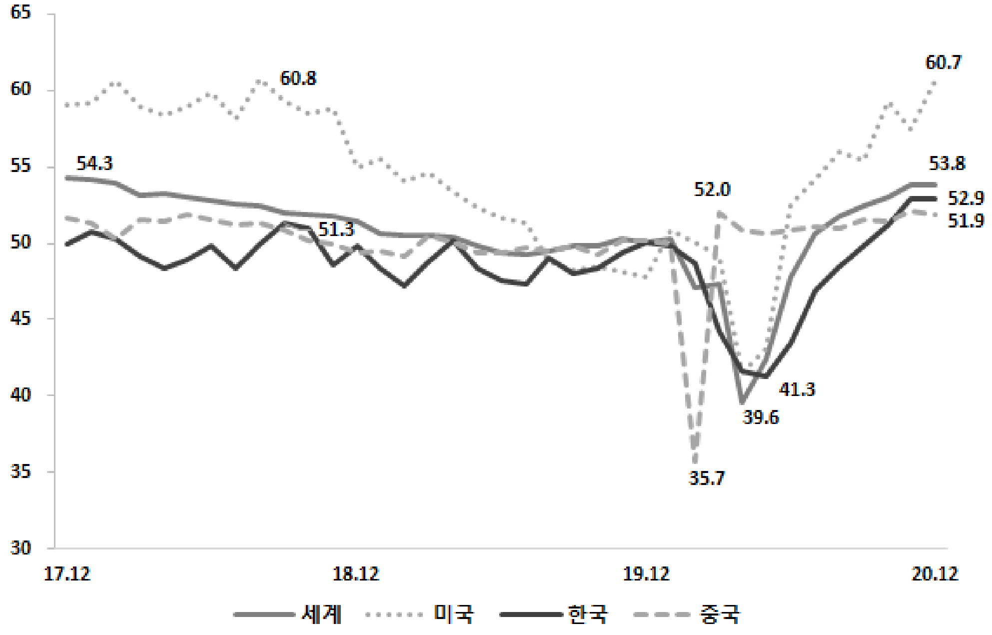
1)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2)]는 2020년 4월,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7개월 연속 반등함

○ 2020년 1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3.8로, 2020년 4월 39.6을 기록한 후 11월까지 상승을 지속한 후 12월에는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

○ 2020년 12월 주요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미국 60.7, 중국 51.9, 한국 52.9로, 각각 4월, 2월, 5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모두 반등함

〈그림 6〉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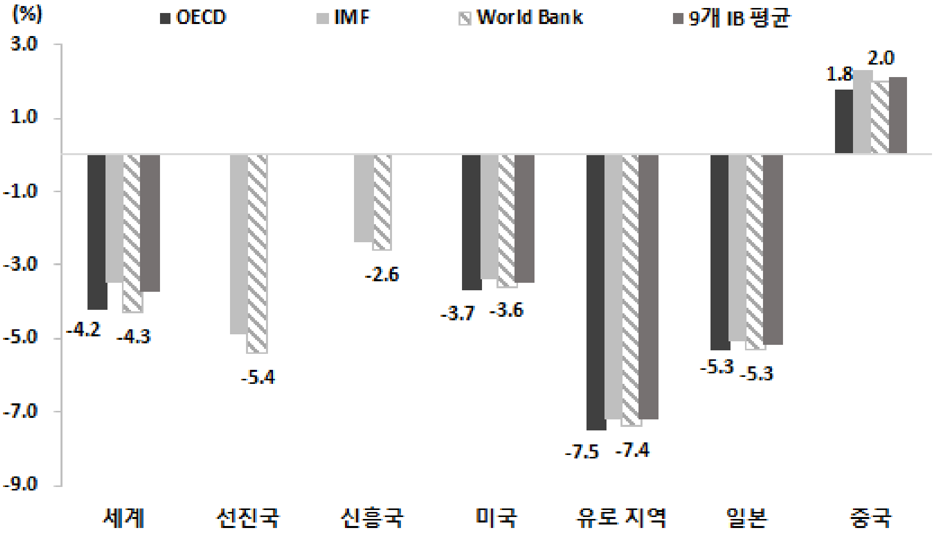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2020년 하반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와 이에 대한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함

○ OECD는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확산 방지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단기간 세계경제 성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하였으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2로 소폭 상향 조정함[3)]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3) OECD(2020. 12), OECD *Economic Outlook*, Vol. 2020, Issue 2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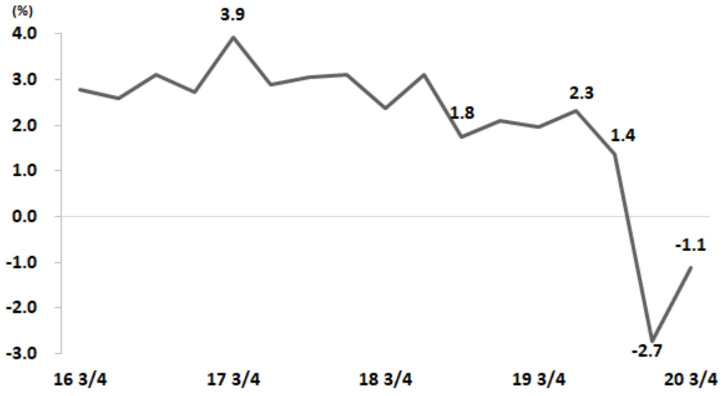


주: 9개 IB: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
자료: IMF(2021. 1); OECD(2020. 12); World Bank(2021. 1); 9개 IB 평균(2021. 12)

나. 국내경제

■ 2020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수출입이 개선되고 투자와 수주가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1.1%을 기록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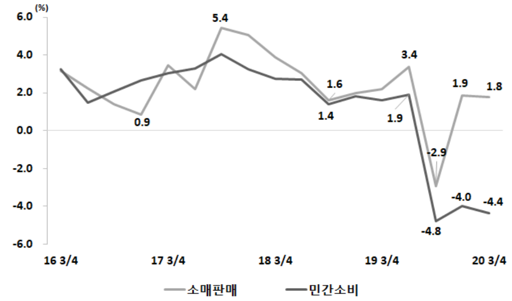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면서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4%대 감소세를 이어감

○ 2020년 3/4분기 소매판매는 1.8% 증가하면서 2/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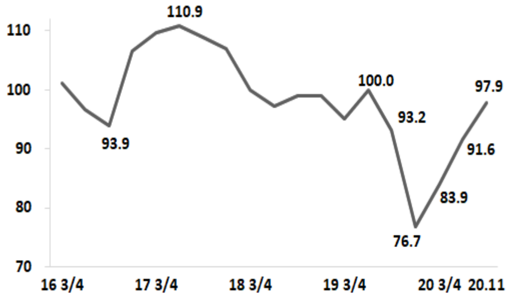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83.9로 전분기 대비 7.2p 상승하였으며, 11월 97.9로 상승세를 지속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3/4분기 설비투자와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를 지속함

○ 2020년 3/4분기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4]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지식생산물투자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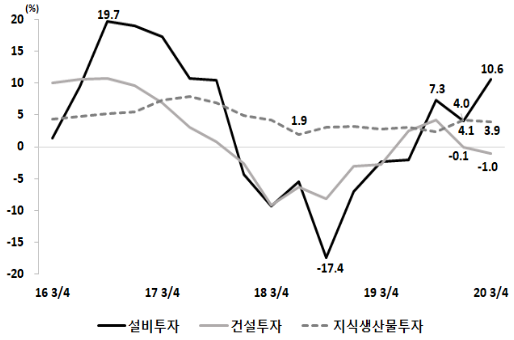
○ 반면 2020년 3/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2/4분기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감

○ 2020년 3/4분기 기계수주는 전기업, 공공기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5]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고, 건설수주는 9월 중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여[6]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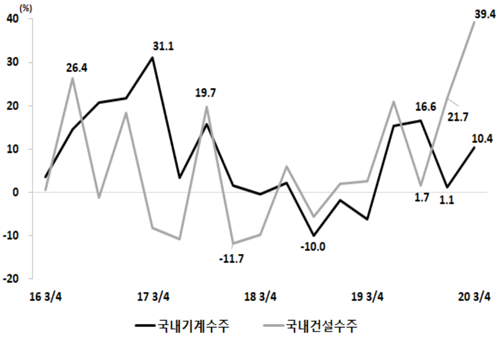
4) 통계청 보도자료(2020. 8),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5)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6)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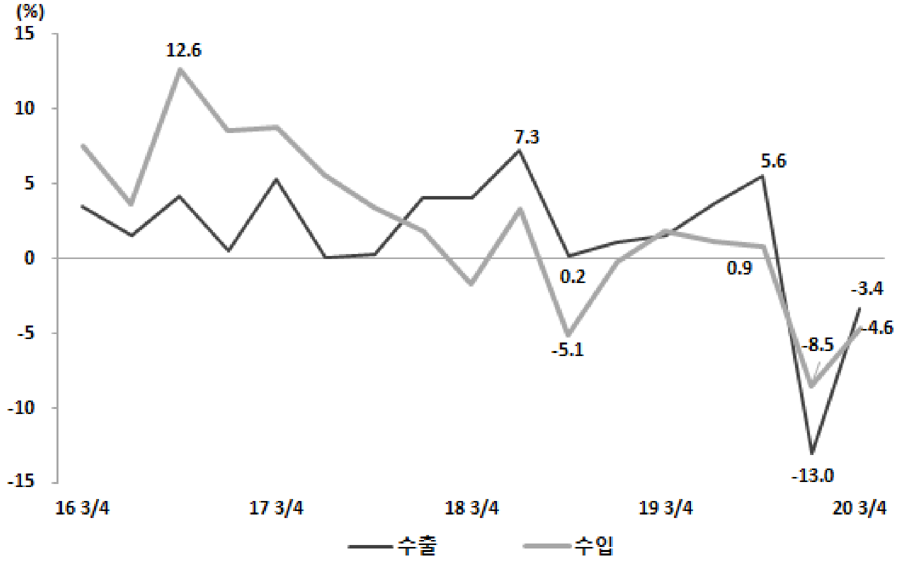
〈그림 12〉 기계수주,[1] 건설수주[2] 증가율



주: 1) 선박은 제외함
2) 경상임
자료: 통계청

■ 2020년 3/4분기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4.6%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개선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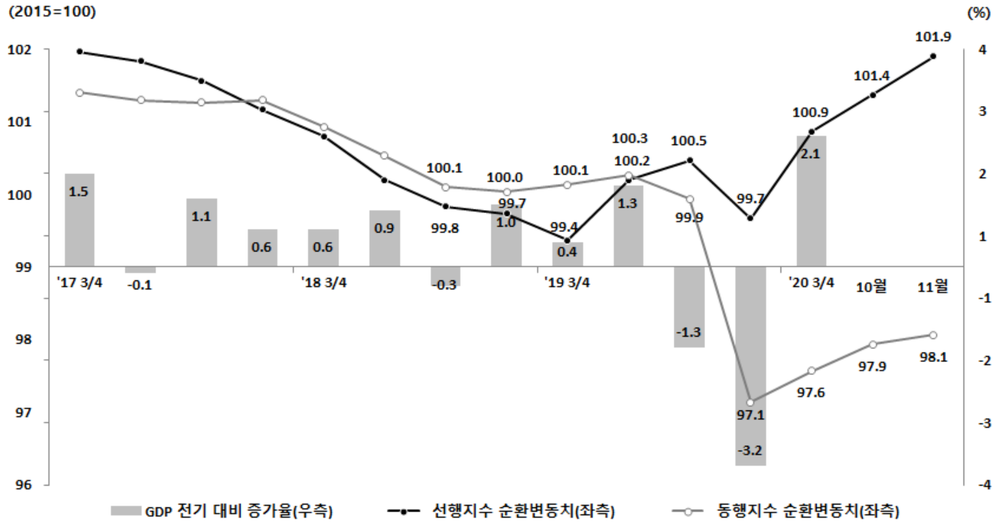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7] 순환변동치, 경기 동행지수[8] 순환변동치는 모두 상승하였으며, 2020년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상승을 이어감

○ 2020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7~9월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등이 증가하여[9]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100.9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2년 8월과 9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10]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97.6을 기록함

○ 2020년 10월과 1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에서 101.9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9에서 98.1로 각각 상승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0년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7)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8)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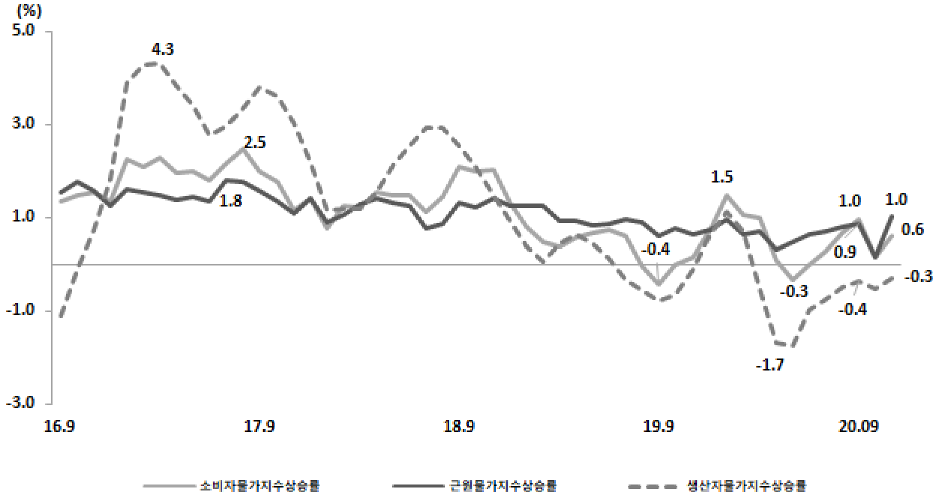
9) 통계청 보도자료(2020. 8),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10)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월 1.0%를 기록한 후, 10월과 11월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11월 다시 1.0%를 기록함

○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통신비 지원 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감소하였다가, 통신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11월 다시 상승하여 1.0%를 기록함[11]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한 후, 2021년 각각 3.0%, 3.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12]은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1.2%(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에서 최고 -0.8%(BoA-ML, Nomura), 평균은 -1.1%로 전망함

11) 기획재정부(2020. 11; 2020.12), 「최근 경제동향」
12)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0년 12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F)[1]		2021(F)[1]	
			한국은행[2]	KDI[3]	한국은행[2]	KDI[3]
실질 GDP	2.9	2.0	-1.1	-1.1	3.0	3.1
민간소비	3.2	1.7	-4.3	-4.3	3.1	2.4
설비투자	-2.3	-7.5	5.7	6.0	4.3	4.7
건설투자	-4.6	-2.5	-0.7	0.0	0.5	2.0
지식생산물투자	4.4	3.0	3.8	3.7	3.9	4.3
상품수출	3.3	0.5	-1.6	-2.2	5.3	3.7
상품수입	2.0	-0.8	-0.6	-0.5	5.9	4.6
실업률	3.9	3.8	4.0	4.0	3.8	4.1
소비자물가	1.5	0.4	0.5	0.5	1.0	0.7
경상수지	775	600	650	624	600	579
상품수지	1,101	769	740	709	730	669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326	-169	-90	-85	-130	-91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0. 11),『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11),『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하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고자 함[13)]

○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였으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3/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과 투자 지표도 소폭 개선되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상향조정됨

○ 단, 민간소비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의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고 자산 매입과 가계·기업 대출 지원 정책의 확대, 지속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14)]

○ 미 연준(Fed)은 11월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동결하고 소기업 대출 지원(PPPLF)과 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 긴급대출제도를 추가 연장하기로 함

○ 유럽 중앙은행(ECB)은 9, 10월 기준금리를 0.00%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APP)과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확대·지속하기로 결정함

○ 영국 중앙은행(BOE)은 9, 11월 기준금리를 0.10%로 동결하고 11월 회의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7,450억 파운드에서 8,950억 파운드로 확대 편성함

○ 일본 중앙은행(BOJ)은 9, 10월 단기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고 국채 무제한 매입과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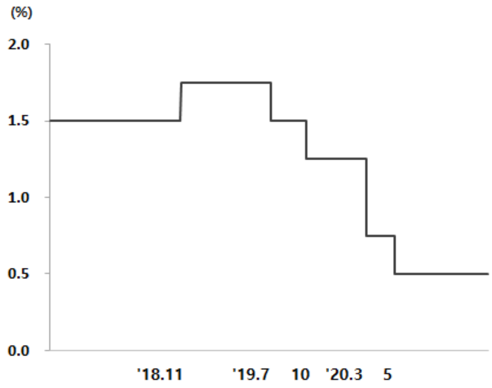
---

13) 한국은행(2020. 8. 27), 『통화정책방향』
14) 한국은행(2020. 1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기준금리 동결로 단기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이나 주요국 국고채 금리 상승과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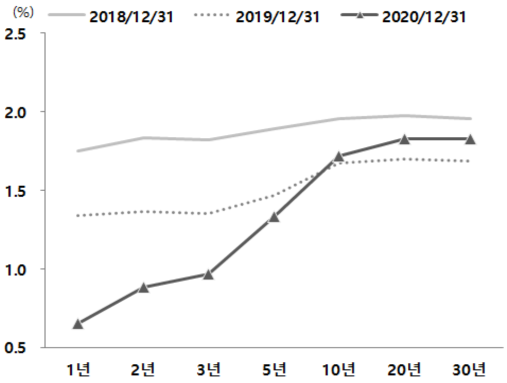
○ 미 대선 불확실성 완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대외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과 연동되어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고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국고채 수급 경계감 등에 영향을 받아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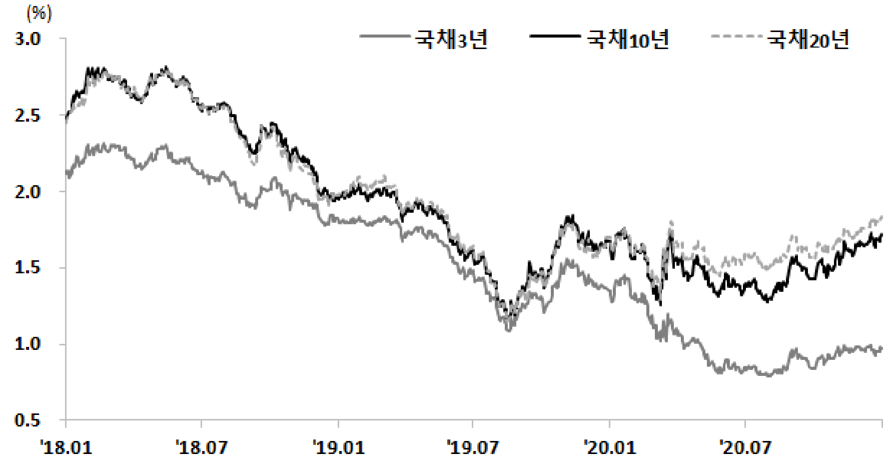
○ 10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15]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 이후 미 대선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 등으로 상승 압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 3년물 국고채 금리는 9월 말 0.85%에서 12월 0.99%로,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9월 말 1.43%에서 12월 1.72%로 상승함

15) 국내 경제성장률: 2020년 2/4분기 -3.2% → 3/4분기 2.1%(전분기 대비)
미국 경제성장률: 33.1%(전분기 대비 연율)

〈그림 18〉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스는 확대,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됨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기준금리 동결과 국채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9월 61bp에서 12월 76bp까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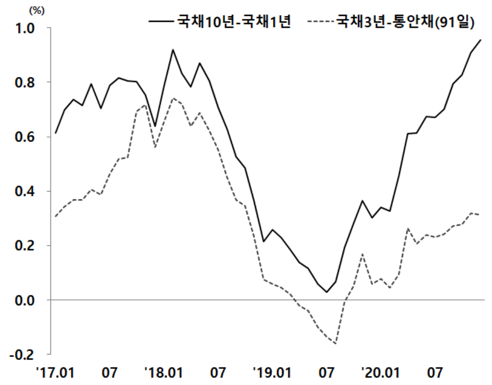
-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2년물 신설 발행에 따른 단기물 발행 비중 확대로 향후 장단기 스프레스 확대는 다소 완화될 전망임[16]

○ 신용스프레드는 4/4분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회사채 발행 물량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공급 확대, 경기 개선 기대 등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17]되며 축소세를 보임[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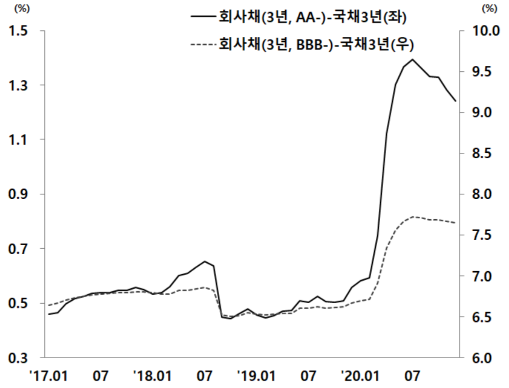
16) 하나금융연구소(2020. 12. 18), 「금리: 외국인 주도의 장세 지속 불가피」,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6호
17) 10월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은 350%로 전년 동기 대비 29%p 상승함
18) 하나금융연구소(2020. 11. 23), 「금리: 코로나 재확산이 일방적 금리 상승을 제한」,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4호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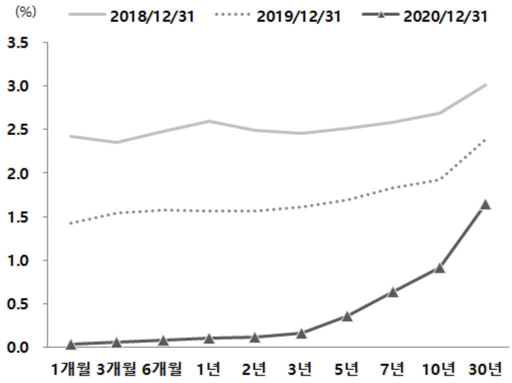
■ 미국 국고채 금리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혼재하며 금리 상승세가 제한됨

○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자산 매입을 명시화하는 등 자산매입 프로그램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함

○ 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0월 0.68%에서 11월 0.98%로 급등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승세가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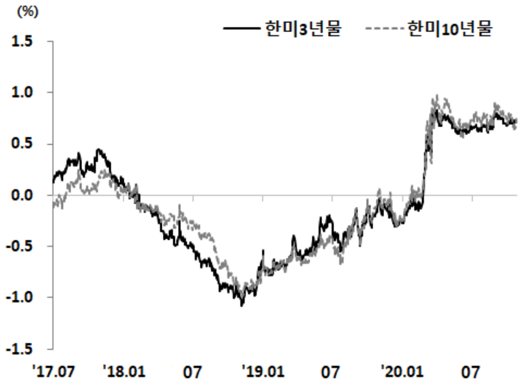
○ 12월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와 미 대선 결과 관련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0.9%대로 상승함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1/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한국과 미국 모두 상향 조정함

○ 2021년 1/4분기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06%로 지난 10월 전망치 0.86%에 비해 0.20%p 상향 조정함

○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4%로 지난 10월 전망치 1.51%에 비해 상향 조정하였으며, 3년물 금리는 1.08%로 0.19%p 상향 조정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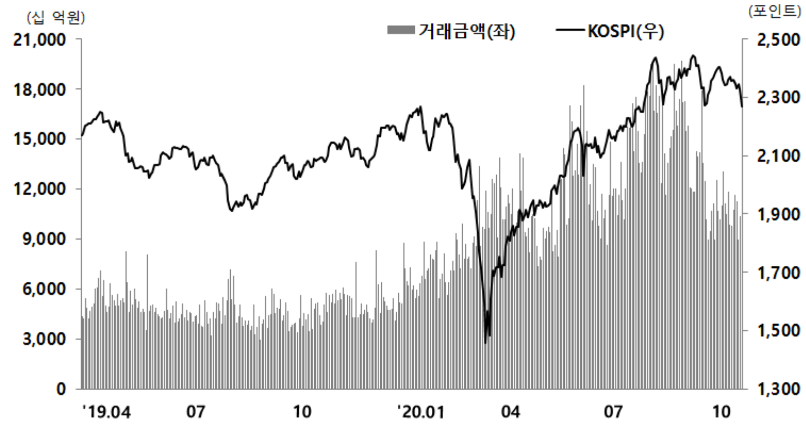
미국 국고채(10년)금리			한국 국고채(10년)금리			한국 국고채(3년)금리		
’21. 1Q	2Q	3Q	’21. 1Q	2Q	3Q	’21. 1Q	2Q	3Q
1.06	1.19	1.26	1.74	1.81	1.86	1.08	1.11	1.17

주: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주가

-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락을 보이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큰 폭으로 상승함
  - ○ 10월 코스피는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하락세를 보임
  - ○ 이후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상용화 기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와 국내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큰 폭으로 반등하며 2020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다. 환율

-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코로나19 백신 개발, 미 대선 이후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9월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12월 1,080원대로 하락함
  - ○ 10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지표 개선,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120원대까지 하락함
  - ○ 이후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본격화되었으며, 외국인 주식 순매수,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19] 하락세를 보이며, 1,080~1,100원대에서 등락을 보임

19) KDB 미래전략연구소(2020. 12. 7), 「11월 동향 및 12월 전망」, 『Weekly KDB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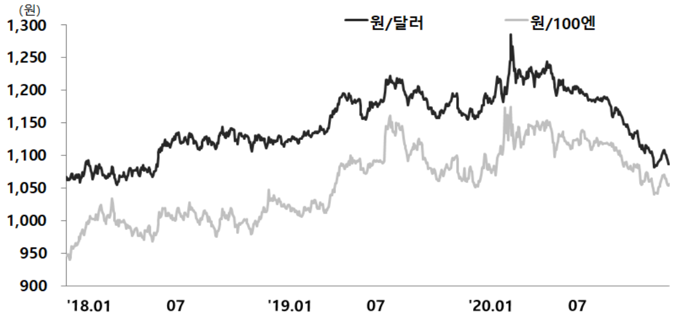
- 11월 외국인 순매수는 5.1조 원에 달하고 선박 수주 등 수출 회복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음

■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소식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10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됨

○ 원화가 초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20] 발표로 원/엔 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내 약세를 보임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1/4분기 원/달러와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 재정부양책 통과 등의 영향을 받아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달러/유로 환율은 브렉시트 합의,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21]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22]

20) 일본 중앙은행(BOJ)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하고 자금융통지원 특별 프로그램 만기와 회사채·기업어음(CP) 추가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함
21)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이 있음(한경 경제용어사전)
22) 하나은행(2021. 1), 「유로/원 환율」, 『Hana Market Monthly』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0. 4Q	'21. 1Q	'20. 4Q	'21. 1Q	'20. 4Q	'21. 1Q
Morgan Stanley	1,087	1,090	103	103	1.23	1.20
Mizuho Bank		1,080		101		1.21
SCB Securities		1,080		100		1.23
JPMorgan Chase		1,070		102		1.20
BNP Paribas		-		101		1.22

주: 2021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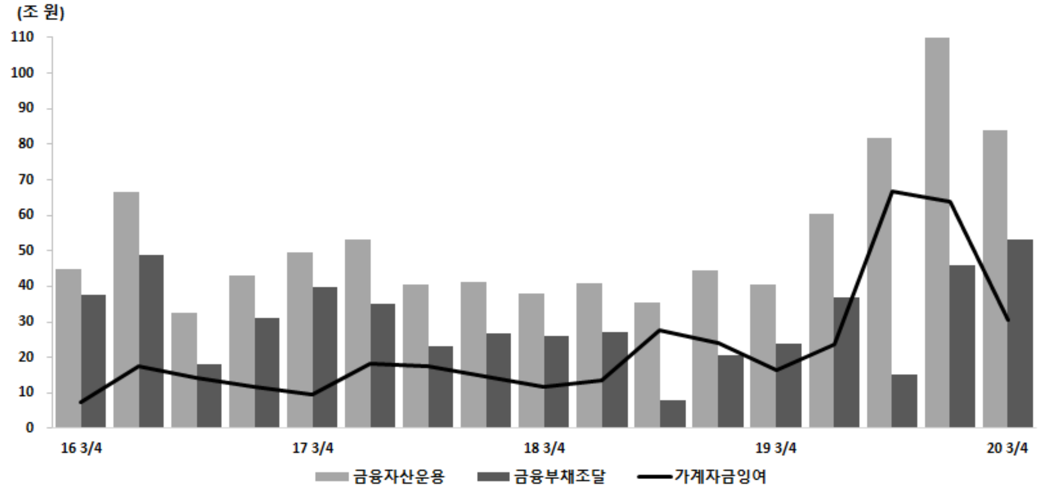
3. 자금흐름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23]의 자금잉여[24]는 30.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33.4조 원 감소함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83.8조 원으로 2009년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2/4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조달은 53.2조 원으로, 가계부문에서 30.6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거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 및 연금, 채권, 국내외 주식, 투자펀드 거래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 1/4분기 13.3%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4분기에 반등하여 15.1%를 기록함

23)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4)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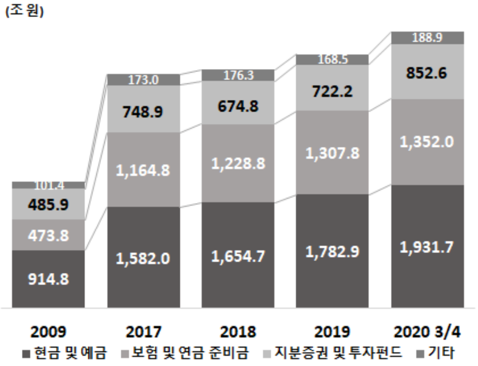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30.7	72.0	(39.7)	-17.6	-7.9	2.1	2.0	0.1	181.4
2020 1/4	66.0	10.9	(13.3)	-3.0	9.9	1.9	-6.7	2.8	81.8
2020 2/4	54.2	16.6	(15.1)	11.3	17.3	4.0	4.0	2.7	110.1
2020 3/4	30.4	12.1	(14.4)	9.7	23.3	8.3	-0.9	0.9	83.8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3/4분기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2019년에 비해 1.5%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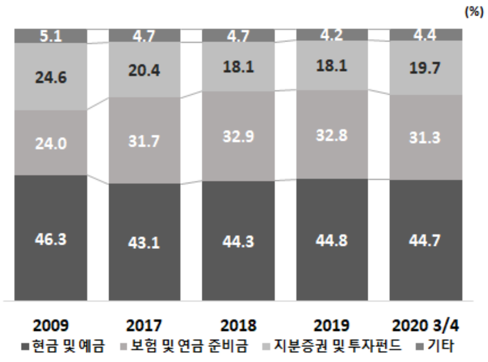
○ 가계금융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하였고, 2020년 3/4분기는 2019년보다 0.1%p 하락하여 44.7%를 기록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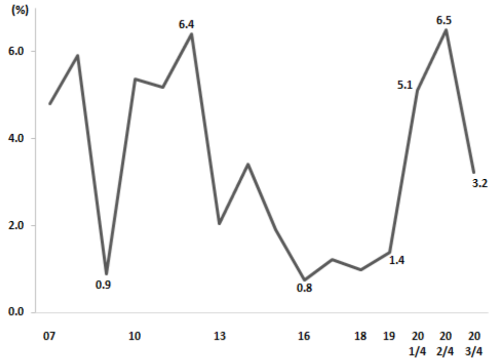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2%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전분기 대비 3.3%p 하락함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2/4분기 12.6%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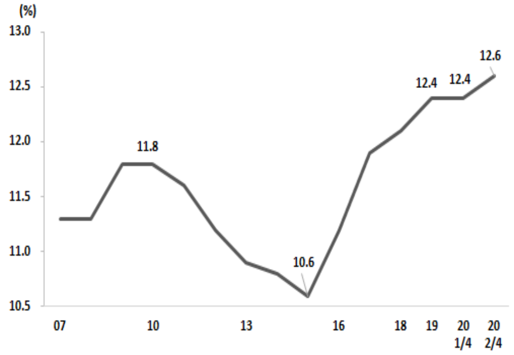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2020년 증가율은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통계 개편(고시 제2020-111호)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농림어가 제외)'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9〉 DSR



자료: BIS

4. 규제·제도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2020. 12. 17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할 것임. 또한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할 것임

■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 제도 도입(2020. 12. 9 금융위원회)

○ 새로 도입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자기부담금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될 것임. 보험료 상승의 주(主)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임(제4세대 실손, 2021년 7월 출시 예정)

■ 20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2020. 11. 30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 예정임. IFRS 17 및 K-ICS 계량영향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및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 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임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11. 19 금융위원회)

○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하였음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20. 11. 18 금융위원회)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 발표(2020. 11. 2 한국회계기준원)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0년 6월에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의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10. 20 금융감독원)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보상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20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이 각각 1억 1천만 원, 5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됨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출시(2020. 10. 15 금융위원회)

○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였으며,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 가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